

삼겹살 2만원 시대... 줄인상 외식물가에 가계 지갑 닫는다

GDP성장률 곤두박질 가능성
짜장면 평균 가격 7000원
삼계탕, 전년비 올 4월 12% 인상
육류·채소 등 '밥상 물가' ↑



치킨 등 외식물가 상승에 냉동치킨 판매량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알려진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냉동치킨들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치솟는 '외식 물가' 및 '밥상 물가'가 이른바 만성화하는 무역적자에 더해 경제성장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외식 물가는 코로나19 이후 살아나는 듯 보이던 소비심리를 되레 위축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부진한 수출에 더해 내수마저 계속 저조한 수치를 나타낸다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는 더욱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식재료 가격의 가파른 오름세에 따라 외식 물가도 덩달아 꿈틀대고 있다.

서울 지역 짜장면 평균가격이 7000원, 삼겹살은 1인분에 2만원선을 넘보

고 있다. 짜장면 1인분은 불과 한 달 새 115원 오른 6915원으로 집계됐고, 돼지고기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지난달 기준 삼겹살 200g(1인분) 가격이 1만 9236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11.4% 상승한 수치다.

닭고기 값도 부쩍 올라 지난해 4월 1만4500원이던 삼계탕이 올 4월엔 1만 6346원으로 12% 이상 올랐다.오는 7월

11일부터 시작하는 삼복을 앞두고 삼계탕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드치킨 또한 마찬가지로 밥상물가에 큰 위협 요인이다.

김치찌개 백반이 전년 동월대비 8.6% 상승했고, 김밥(7.4%), 비빔밥(6.9%), 칼국수(6.5%) 등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식 물가뿐만이 아니다. 통계청 지

표에 따르면 밥상에 오르는 육류, 생선, 채소 값 모두 상승세의 연속이다.

'외식 물가와 밥상 물가' 둘 다 단번에 잡기 위한 특단의 처방으로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카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매파적 기조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된 직후의 일이고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때문에 인상 카드는 요원한 일이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또한 줄곧 이어온 금리인상 기조를 이젠 종료할 시점을 찾고 있다. 따라서 국내 중앙은행의 선택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경기가 안좋을 때마다 줄곧 '금리인하론'을 꺼내들었던 기획재정부로선 답답하기 그지 없는 상황이다. 물가가 뛰는데 금리 인하를 주장할 순 없는

노릇이다.

수출 실적이 매우 저조해 무역수지 적자가 쌓일뿐더러 물가 고공행진으로 지갑을 닫는 가계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 1.6% 달성조차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공무원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상승은 당연한 일이다. 코로나19 이후의 특수한 상황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동안 감내해야할 부분으로 본다"며 정책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공공요금 인상도 힘든데 설탕·밀가루까지 올라

올 하반기 엘니뇨 발생 우려에
사탕수수·밀 수확량 급감 할 수도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설탕·축산물 가격까지 오르면서 또 한 번 식탁 물가 연쇄 인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 통계에 따르면 런던국제금융거래소(LIFFE)에서 거래되는 설탕값은 12일(현지시간) 기준 t당 716.90달러로 연초 대비 약 30% 상승했다.

올 하반기 강한 엘니뇨 탓에 설탕의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의 주요 생산국 수확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폭등했던 밀가루 가격도 위태롭다. 인도는 세계 2위의 밀 생산국이지만 엘니뇨의 영향으로 6-9월 강우량이 급감할 경우 수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에도 문순 기간 강우량 부족으로 곡물 생산이 줄어들자 밀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어 올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밀 공급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

국제 설탕·밀 가격 폭등의 여파는 국내 먹거리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설탕과 밀가루가 주원료인 과자나 빵 등 주요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식품업계의

경우 가격 인상 부담을 체감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대한제당 등 3사는 최근 식품업체들에 가격 추가 인상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마다 계약 기간과 내용이 다르지만 대부분 다음 달쯤 10% 안팎의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소매 제품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공식품의 재료 비용이 올라가는 셈이기에 추후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들은 정부의 가격 동결 요청으로 인상을 자제하고 있지만 하반기 미리 구매해둔 비축분이 한계에 달하고 강력한 엘니뇨가 물려온다면 가격 인상은 자연스러운 수순이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기에 얹힌 데 덮친 격으로 에너지 비용까지 상승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16일 전기요금이 kWh당 8.0원, 도시가스요금을 MJ당 1.04원 오르면서 올 여름 냉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방침에 따라 올해 소비자물가는 0.1%p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가스 요금 가중치를 이번 인상폭인 5.3%에 곱해 연간 효과로 계산한 것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암의 조기 발견은
결국 운에 맡기는 거 아닌가?

같은 암이면 누구나
같은 치료를 받는 거 아닌가?

암보험은 보험금만
받으면 끝 아닌가?

예전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한화생명 시그니처암보험(무)

더욱 새로워진 시그니처 암보험 3.0(무)을 만나보세요

상담문의 080.365.6363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범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상품은 비갱신형 또는 갱신형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계약의 소멸 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암보장 기시일은 가입 후 91일부터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 특약 가입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및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hanwhalife.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3-01905호(2023-02-21~2024-02-20) 준법감시인확인필 CS 23-04-013



서울시, 지하철 요금 하반기 150원 ↑ 검토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 300원을 한번에 올리는 방안 대신 150원씩 두번에 나눠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는 1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차 서울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후보자 인사특별위원회에서 김경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당초 4월에 300원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물가 상승 등 부담 과중 때문에 미뤄졌다. 분리해서 하반기에 먼저 15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150원을 올리고 추후 150원을 마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150원을 나눠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나 결정된 것은 없다"며 "아직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